

제3회 여성발명 경진대회

일시: 2005년 11월 25일(금) 본선심사 및 시상식 16시



지난 11월 25일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여성 발명협회가 주관한 '제3회 여성발명 경진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여성들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아이디어 계발에 대한 의식 고양을 통한 여성 발명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에 앞장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경진대회는 총 2백70여점의 아이디어가 출품되어 지난 2003년과 2004년에 개최된 1, 2회 2백 여

점의 참가에 비해 많은 호응과 관심을 보였다.

올해로써 3회째를 맞는 이번 경진대회는 지난 11월 8일 서류심사를 통해 9명의 본선심사 대상자와 30명의 동상 수상자, 18명의 장려상 수상자를 결정하였다. 본선심사 대상자로 결정된 9명은 같은 달 25일에 개최된 본선심사 및 시상식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표, 아이디어의 독창성과 구체성, 실용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과 금상, 은상 수상자가 결정되었다.

사진설명: 「제3회 여성발명 경진대회」의 대상, 금상, 은상 수상자들과 자리를 함께한 내빈들. (윗줄 왼쪽부터) 유명기 한국특허정보원 원장, 민경탁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 김종갑 특허청장, 한미영 한국여성발명협회 회장, 조인제 대한변리사회 부회장, 최금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부회장.

발명 아이디어의 축제

제3회 여성발명 경진대회

영예의 대상인 부총리겸 과학기술부 장관상에는 '말뚝 및 콘크리트 선형구조물 절단장치'에 대한 아이디어를 선보인 안선희 (주)대호에코텍 대표이사가 선정되었다. 심사위원들은 '최근 발명 아이디어가 남성과 여성의 분야로 구분되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를 가장 적절히 보여주는 것이 안선희 대표이사의 아이디어'라며 '앞으로도 많은 아이디어를 적절하게 자원에 접목시켜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일반부 금상인 산업자원부 장관상에는 '전기용접기 핀셋 형 용접손잡이'를 발표한 서애진 코네쥬얼리 대표, 학생부 금상인 여성가족부 장관상에는 '온라인 콘텐츠 유통방법'을 발표한 정우정 (서울대학교 3학년) 학생이 선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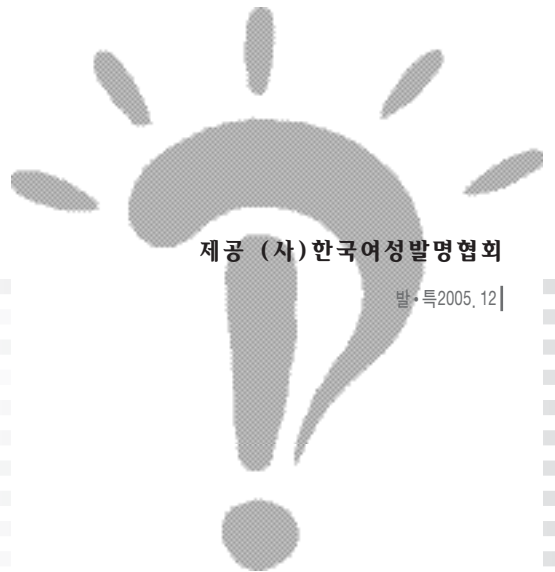
특허청장상인 은상은 '조합 경혈 자극기'를 발표한 김경란 (주)비엔알맥스 대표이사, '3-way가 부착된 IV SET'를 발표한 손혜안 상계백병원 수간호사, '단권변합기를 이용한 가정용 절전장치'에 대해 발표한 손순향 (주)대경일렉 대표, '점도조절 아이라이너'를 발표한 이혜정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학생, '거꾸로 타는 가스레인지'에 대해 발표한 이향민 (경희대학교 1학년) 학생, '초록색과 파란색 장 간광의 촉광 재료'에 대해 발표한 김두리(서울대학교

4학년) 학생에 수여되었다.

이 외에도 한국발명진흥회, 대한변리사회, 한국 특허정보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이번 대회를 후원한 유관기관장상인 동상에 30여명의 수상자가 수상하였으며, 한국여성발명협회회장상인 장려상도 18명의 수상자에게 돌아갔다.

이번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안선희 (주)대호에코텍 대표이사는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상금으로 받은 2백만원 중 1백만원은 한국여성발명협회에, 나머지 1백만원은 환경단체에 기부할 것'임을 밝혀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김종갑 특허청장은 격려사를 통해 '여성들의 특별한 발명 아이디어를 한자리에 모아 볼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대회들을 통해 수많은 여성 발명가들이 탄생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제공 (사)한국여성발명협회

발*특2005.12|